

효제문자도(孝悌文字圖)를 통하여 본 성경 속 인물탐구

이주은 연세대 미래캠퍼스 글로벌창의융합대학 겸임교수

목차

1. 들어가기
2. 효제문자도의 소재와 상징성
 - 2.1 한자문화권
 - 2.2 한국적 소재와 상징성
3. 성경 속 인물 탐구
4. 나오기

1. 들어가기

효제문자도는 한자가 지니는 조형성과 의미를 담은 상징물을 통해 교훈적인 내용을 전달한다. ‘효孝, 제悌, 충忠, 신信, 예禮, 의義, 엄廉, 치恥’의 여덟 문자를 소재로 하고있는 효제문자도는 글자마다 그 뜻과 관련된 일화나 상징물을 조화시켜서 그려졌다¹⁾. 따라서 먼저 효제문자도와 관련된 한자문화권의 고사(故事)들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한국문화권에서 잘 알려진 내용을 소재로 하여 상징성을 찾아보았다.

또한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하여 효제문자도를 더 깊이있게 탐구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하여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내용들을 본으로 삼아, 효제문자도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 글 속에서 전해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파악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정으로까지 양육과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 효제문자도의 소재와 상징성

2.1 한자문화권

1) 이정아 『효제문자도 : 아름다운 그림글자』, 서울 : 지식과 감성, 142p, 2017.

1) 효자의 소재와 상징

부모님께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뜻하는 문자, 효에는 왕상빙리(王詳冰鯉)의 잉어, 맹종설순(孟宗雪筍)의 죽순과 대나무, 황향침선(黃香枕扇)의 부채, 대순탄금(大舜彈琴)의 거문고, 육적회굴(陸績懷橘)의 귤 등이 소재가 되었다²⁾. 여기서 왕상빙리(王詳冰鯉)의 잉어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진나라 시대에 왕상이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아파 누워계시자 물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시는 어머니를 위하여 물고기를 잡으려 꿈꿨던 얼은 강의 얼음을 깨고 낚시를 하였으나 물고기는 쉽게 잡히지 않았다. 물고기를 잡지 못한 왕상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왕상의 눈물은 강의 얼음을 녹였고 그 자리에서 잉어가 튀어나와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집으로 온 왕상은 잉어를 꼭 고아 어머니를 보살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물고기 그림은 왕상의 효행을 상징한다.

또한 맹종설순(孟宗雪筍)의 이야기에서도 효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다.

오나라 시대의 맹종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추운 겨울 어느 날 어머니가 죽순이 먹고 싶다고 하여 맹종은 대나무밭으로 향했다. 흰 눈이 쌓인 대나무 밭을 아무리 뒤져도 5월에 나는 죽순을 찾을 수가 없었다. 죽순을 찾지 못한 맹종은 차가운 대나무 밭에서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렸다. 맹종의 뜨거운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 쌓여있던 눈이 녹으며 그 속에서 죽순이 솟아 올랐다. 그리하여 맹종은 어머니께 죽순을 드릴 수 있었다. 죽순 그림은 맹종의 효행을 상징한다³⁾.



[그림 1] 4)

2) 이정아 『효제문자도 : 아름다운 그림글자』, 서울 : 지식과 감성, 142p, 2017.

3) 이정아 『효제문자도 : 아름다운 그림글자』, 서울 : 지식과 감성, 143p, 2017.

2) 제悌자

복숭아 나무는 믿음을 나누는 의형제를 상징한다. 복숭아나무는 관우, 유비, 장비가 의형제를 맺는 장소로 도원결의(桃園結義) 고사성어(故事成語)가 있다.

유비는 시국이 어지러울 때 나라를 위해 같이 일할 수 있는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유비는 술을 먹고 싸움에 휘말린 장비를 구해주면서 인연이 된다. 관우는 시장거리에서 장비와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다가 유비가 말리면서 인연이 된다. 세 사람은 각기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형제의 의를 나누고 신의를 지키고 살 것을 맹세한다. 복숭아 나무는 유비, 관우, 그리고 장비가 의형제를 맺는 신성한 장소로써 형제의 우애를 상징하게 되었다⁵⁾.

요즘 뉴스를 통하여 형제 간에 금전 문제로 법정까지 가게 되는 사건과 소식들을 접하면서 다시금 마음에 되새겨야 할 덕목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림 2] ⁶⁾



[그림 3] ⁷⁾

4) 화조문자도 8폭 병풍 중 일부 (국립 민속 박물관), 문자도(文字圖) 8폭으로 구성된 병풍 중 일부로 '孝'자와 관련된 일화나 상징물을 도식화(圖式化).

5) 이정아 『효제문자도 : 아름다운 그림글자』, 서울 : 지식과 감성, 148p, 2017.

6) 두 마리의 새가 먹이를 나누어 먹는 모습으로 형제간의 우애를 그려 글자를 표현함.

7) 문자도(文字圖) 8폭으로 구성된 병풍 중 일부로 '忠'자와 관련된 일화나 상징물을 도식화(圖式化).

3) 충충

용은 신령한 힘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을 다스리는 전설 속의 영물이다.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비를 다스리는 용은 최고의 권력물로 상징된다. ‘용문에 오르다’란 의미의 등용문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표현하며, 나라의 최고권력자인 임금님의 상징문양으로도 사용하였다. 용의 그림에는 잉어의 수염과 같은 수염이 달려있다. 이것은 잉어가 승천하는 힘을 갖게되어 용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용은 최고의 권세를 뜻하며 충성스러운 이미지를 상징한다⁸⁾.

이 ‘忠’字 그림에 등장하는 용과 잉어는 『後漢書』 『李濟傳』에 나오는 어변성룡(魚變成龍) 설화와 관련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해마다 복숭아꽃이 물 위를 흐르는 봄철이 되면 황하 상류 용문협곡에 잉어들이 모여들어 급류를 다투어 뛰어오르는데, 이 때 성공적으로 뛰어 넘은 잉어가 용이 된다고 한다. 이 어변성룡 설화와 관련하여 사람들은 선비가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높은 벼슬자리에 오르는 것을 잉어의 등용문(登龍門)에 비유하였는데, 높은 관직에 오르면 나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잉어가 중국의 용문폭포를 힘차게 뛰어올라 여의주를 물면 용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대궐에 입궐하여 직접 왕을 모시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뜻하는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 등용문은 출세를 상징하는 용어로 쓰고 있지만 예전에는 출세가 아닌 충성을 의미한 글자였던 것이다⁹⁾.

어변성룡(魚變成龍)이라는 글과 같이 보잘 것 없는 사람이 열심히 학문을 갈고 닦아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을 받는 성공한 모습을 의미한다. 잉어가 가지고 있는 비늘이 장군의 갑옷을 연상시켜서 충성스러운 장군의 모습을 상징하게 된다. 잉어의 입가에 있는 수염을 용의 수염과 결부시켜 잉어가 물 속에서 변하여 용으로 승천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충자에 등장하는 잉어는 용의 꼬리를 물고 있다. 이것은 잉어가 변하여 승천하는 용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새우도 충자의 소재로 등장하는데, 새우의 단단한 껍질은 장군의 갑옷을 연상시켜 충성스러운 신하의 이미지를 의미하고 새우의 구부러진 허리는 임금님께 충성하는 신하의 자세를 뜻한다. 새우를 의미하는 하(蝦)가 화합할 화(和)와 발음이 유사해서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서 서로 화합하여 충성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¹⁰⁾.

새우와 조개(대합)가 어떻게 ‘충’자와 연결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허균¹¹⁾ 씨는 「전통 미술의 소재와 상징」에서 다음과 같이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다.

8) 이정아 『효제문자도 : 아름다운 그림글자』, 서울 : 지식과 감성, 150p, 2017.

9) 서민자, 「조선 후기 孝忠 사상과 문자도 연구」-효제문자도를 중심으로-, 아시아民族造形學報 通卷 第 8輯, 2010. 03

10) 이정아 『효제문자도 : 아름다운 그림글자』, 서울 : 지식과 감성, 150p, 2017.

11) 허균, 『우리 민화 읽기』, 북폴리오, 2006.

대합과 새우는 위에서 말한 하합상하(蝦蛤相賀)라는 화제가 말해 주듯이 화합(和合)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새우 ‘하(蝦)’의 발음이 ‘화(和)’의 발음과 유사하고, 대합 ‘합(蛤)’의 발음이 ‘합(合)’의 발음과 서로 같은 데서 연유한 것이다. ‘충’자 그림에 화합이란 개념이 들어간 이유는 나라에 충성함으로써 군신(君臣)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새길 수 있다. 대합과 새우는 또 충절과 관련된 굳은 지조와 최상(最上)의 직위를 상징하고 있는데, 지조는 대합과 새우가 모두 단단한 껍데기로 싸여 있기 때문이며, 최상은 이들이 가진 껍데기 ‘갑(甲)’을 첫째 라는 의미의 ‘갑(甲)’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4] 12)

4) 신信

신信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뜻한다. 편지는 사람이 서신을 통해 하는 약속이므로 믿음을 전달하는 글이다¹³⁾.

청조(靑鳥)는 새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얼굴을 지니고 있는 상상의 새이다.

한나라 무제(武帝)는 불로장생의 비결을 알고자 신선에게 기도했다. 중국의 서쪽에 있는 곤륜산에 사는 서왕모(西王母)라는 여신이 무제의 기도를 듣고 무제를 만나러 가겠다고 소식을 전한다. 무제의 부하인 동방삭(東方朔)은 날아온 청조를 보고 서왕모가 온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청조는 약속을 지키는 신信的 상징이다¹⁴⁾.

또한 신의 문자도에는 흰 기러기가 종이를 물고 있는 모습이 있다. 이것은 서왕모가 한나라

12) 문자도(文字圖) 8쪽으로 구성된 병풍 중 일부로 ‘忠’자와 관련된 일화나 상징물을 도식화(圖式化).

13) 이정아 『효제문자도 : 아름다운 그림글자』, 서울 : 지식과 감성, 152p, 2017.

14) 이정아 『효제문자도 : 아름다운 그림글자』, 서울 : 지식과 감성, 152p, 2017.

무제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방문을 한다는 소식을 담은 종이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달하는 서신을 뜻한다¹⁵⁾. 기와 집은 서쪽을 지키는 왕들이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서왕모가 살고 있는 궁전을 의미하며, 한나라의 무제가 있는 왕궁을 뜻하기도 한다. 한무고사(漢武故事)에 의하면 7월 7일 홀연히 파랑새(靑鳥)가 한무제의 궁전에 날아들었는데, 이때 동방삭(東方朔)이 말하기를 “이것이 요지(瑤池)의 서왕모(西王母)가 이곳에 온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함시오”라고 하였다¹⁶⁾. 곧 파랑새가 물고 있는 편지는 서왕모가 온다는 언약이며, 그것은 곧 믿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림 5] 17)

5) 예禮

모든 일에는 규칙과 규범이 따른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할 예의, 사회나 문화에서 지켜야 할 관습과 도리를 바르게 따르는 행동을 예禮를 통해 배울 수 있다.

‘예’자에는 글과 수리(數理), 예의의 근본으로 칭해지는 복희씨가 왕이 되어 천하를 다스릴 때의 고사인 ‘하도낙서(河圖洛書)’의 내용이 담겨졌다. 그 도서를 옮겼다는 신귀(神龜)를 뜻하는 거북이나 수리를 뜻하는 별자리 모양의 하도낙서가 표현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공자에 대한 고사가 등장하기도 한다¹⁸⁾.

하도낙서(河圖洛書)¹⁹⁾는 하도와 낙서가 합친 것으로 주역의 기본을 이루는 책으로 하도(河

15) 이정아 『효제문자도 : 아름다운 그림글자』, 서울 : 지식과 감성, 152p 2017.

16) 유홍준, 『문자도』, 대원사, 1993, 40p

17) 문자도(文字圖) 8쪽으로 구성된 병풍 중 일부로 ‘信’자와 관련된 일화나 상징물을 도식화(圖式化).

18) 유홍준, 『문자도』, 대원사, 1993, 41p

19) 하도낙서(河圖洛書)는 고대 중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근본이 되는 책으로 예언과 수리의 기본서이다. 하도와 낙서는 음양의 짝을 이루고 있다.

圖)는 복희(伏羲)가 황하(黃河)강에서 얻은 용마가 가지고 나온 신 다섯 점의 그림이다. 복희(伏羲)는 하도에 근거하여 주역(周易)의 팔괘(八卦)를 만들었다. 낙서(洛書)는 하(夏)나라의 우(禹)왕이 황하의 바람을 다스릴 때 낙수(落水)강에서 구한 거북이의 등에 쓰여진 마흔다섯개의 점들로 아홉 개의 무늬를 만든 글이다. 떨어지는 물에서 받은 글로 우왕은 천하를 다스리는 대법(大法)으로서의 홍범구주(洪範九疇)를 만들었다²⁰⁾. 하도 낙서는 주역(周易)의 근본이 되었다.

물 속에서 나온 커다란 거북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근본이 담긴 책을 등에 지고 있었다. 책을 등에 메고 있는 거북은 예(禮)자의 상징이 된다. 그림에서 내용은 복희가 주역의 팔괘를 만들 때 기초가 된 그림과 우왕이 물에서 나온 거북의 등에서 얻은 글을 바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법으로 홍범구주를 만들었다는 내용이며, 부모 자식,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덕목을 말하고 있다²¹⁾.



[그림 6] ²²⁾

6) 의(義)

‘의’자에는 ‘제’자에 표현되는 「삼국지」의 ‘도원결의(桃園結義)’ 고사가 그려지면서 한 쌍의 꿩이나 새가 장식되고 전체는 건물 형상으로 나타낸 예가 많다²³⁾.

바른 일을 행하는 자세를 뜻한다. 의로운 뜻으로 바른 행동을 하는 義자에는 한 쌍의 새가 등장하여 서로의 정절을 죽을 때까지 지킨다고 알려져 있다. 도원결의의 소재로 사용된 복숭아꽃은 의로움을 상징한다.

20) 이정아 『효제문자도 : 아름다운 그림글자』, 서울 : 지식과 감성, 154p 2017.

21) 김혜진, 『윤리문자도의 해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2011. 12.

22) 문자도(文字圖) 8쪽으로 구성된 병풍 중 일부로 ‘禮’자와 관련된 일화나 상징물을 도식화(圖式化).

23) 유홍준, 『문자도』, 대원사, 1993, 44p

시경에서 볼 수 있듯이 의롭다는 것은 합습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힘이다. 한 쌍의 새가 마주보고 있는 것은 한 번 의리를 맺어 짝이 되면 어느 한 쪽이 죽어도 그 의리를 버리지 않고 정절을 지킨다는 의미이다. 서로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바른 일을 도모한다는 뜻이다²⁴⁾.

옳을 의(義)의 그림에서 복숭아꽃은 삼국지의 유비, 관우, 장비가 의형제를 맺었던 장소인 도원을 상징한다. 연꽃은 진리를 뜻하는 불교적 상징이며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이 활짝 피어오르듯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연꽃이 활짝 피어오르듯이 의리를 잃지 않고 행동함을 의미한다²⁵⁾.



[그림 7] 26)

7) 염廉

바르고 깨끗한 마음을 뜻하는 廉자는 청렴한 상태를 뜻한다. 스스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출처지리(出處之理)²⁷⁾는 진행할 때는 앞으로 나가고 물러설 때는 되돌아오는 게의 습성을 빗대어 廉자를 상징한다. 게의 걷는 모습을 보면 먹이를 구하러 나갈 때 전진하는 모습과 몸을 숨기러 들어올 때 후퇴하는 모습이 분명하다. 사람이 살면서 자신이 나서야 할 자리와 물러서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게의 습성이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봉황(鳳凰)은 오동나무에만 앉으며 살아있는 것은 먹지 않고 대나무 열매를 즐겨먹는다고 알려진 상상의 동물이다. 작은 새들처럼 조잡한 날개 짓을 하지 않고 한 번의 날개 짓으로 천리를

24) 이정아 『효제문자도 : 아름다운 그림글자』, 서울 : 지식과 감성, 156p, 2017.

25) 윤 상, 『문자도 조형성 연구』, 남서울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9.

26) 문자도(文字圖) 8쪽으로 구성된 병풍 중 일부로 '義'자와 관련된 일화나 상징물을 도식화(圖式化).

27)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서는 것을 출출이라고 한다. 자신의 이상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물러나서 절의를 지키는 것을 처處라고 한다. 마음에 뜻을 품으면 세상에 나아가 자기의 이상을 펼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다면 물러나서 때를 기다릴 것이다.

날아가는 위엄이 있다. 이러한 봉황의 곧은 성품은 청렴함을 상징하는 廉자의 소재가 되었다.



[그림 8] 28)

8) 耻恥

耻恥는 耻格(恥格)을 말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알고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耻자에는 백이와 숙제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백이와 숙제는 부친의 상중에 전쟁을 하는 것은 자녀의 미명한 도리가 아니라고 말하며 전쟁을 만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무왕은 상나라를 토벌하고 주나라의 왕이 되었다.

백이와 숙제는 상나라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고 주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치욕이라며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다 굶어죽었다. 군주에 대한 충성을 지킨 백이와 숙제의 행동에서 부끄러움을 알고 바르게 행동하는 耻恥를 배울 수 있고 그들의 소재가 耻耻자에 그려진다.



[그림 9] 29)

28) 문자도(文字圖) 8쪽으로 구성된 병풍 중 일부로 '廉'자와 관련된 일화나 상징물을 도식화(圖式化).

2.2 한국적 소재와 상징성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효孝를 상징하는 <심청전>은 어린 심청이가 장님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삼백섬에 팔려 간 이야기이다. 삼청이의 행동은 효행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된다.

제梯를 상징하는 이야기로는 <의좋은 형제>가 있다. <의좋은 형제>는 벼농사를 지은 두 형제가 서로를 위하여 상대방의 집에 쌀을 더 가져다 주려고 한 이야기이다. 벼를 서로 나누는 이야기는 형제간의 우애를 배우게 한다.

충忠을 상징하는 <충성스러운 개>는 기르던 개가 주인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몸을 던져 주인을 지킨 이야기이다. 말 못하는 동물이 행한 충성심을 배울 수 있다.

신信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춘향전>,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도산 안창호>, <견우와 직녀> 등이 있다. <춘향전>은 남원골에 살던 춘향이 이도령과의 약속을 지킨 신의를 배울 수 있다. 예禮를 상징하는 이야기로 <별주부전>, 義義를 상징하는 이야기로는 <은혜깊은 까치>, <홍길동전>, <흥부와 놀부> 등이 있으며, 청렴함을 상징하는 廉廉과 관련된 <금도끼 은도끼>, <황금이야기>, <흑부리 영감> 등이 있다. 또한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恥恥와 관련된 <견우와 직녀>, <운동주의 서시>, <소가 된 게으름뱅이> 등이 있다.

이렇듯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양한 한국적 이야기들이 효제문자도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

3. 성경 속 인물 탐구

1) 효孝

십계명에도 다섯째 항목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온다. 또한 성경 속 인물 중에 룯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나온다. 나오미와 그녀의 며느리들이었던 오르바와 룯은 남편들이 죽은 후 홀로 남겨졌지만 룯은 자기 고향으로 가라고 권유하시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뒤를 따라가³⁰⁾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까지 하게 되고, 룯은 다윗의 할아버지이자 훗날에 유다의 왕이 된 아기를 낳게 되었다.

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29) 문자도(文字圖) 8쪽으로 구성된 병풍 중 일부로 ‘恥’자와 관련된 일화나 상징물을 도식화(圖式化).

30) (룯 1:16)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룻 1:16).

2) 제梯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으로 팔려 가 종살이를 하면서 온갖 고난을 받게 되었지만, 잘 인내하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된다. 극심한 가뭄으로 시달릴 때, 가족들을 초대하며 결국 형들을 용서하게 되는데 요셉의 고백 중에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내용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다.

형제 간의 우애를 나타내는 내용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용서’란 단어가 더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이라 생각이 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창 50:20)”

3) 충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곧바로 요르단강을 건너 가나안 지방의 관문인 예리고 성을 침공한다. 난공불락의 성으로 명성이 높은 예리고 성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여호와와의 명령에 따라 높은 성벽 둘레를 엄숙하게 행진하여 7일이 되던 날 일제히 나팔을 불며 고함을 지르자 예리고의 강한 성벽은 무너져 내렸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이알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³¹⁾.

"너는 내 명령을 듣지 않았느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 떨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느님 여호와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³²⁾." 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충忠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31) (여호수아 10:12-14) (새 번역)

32) (여호수아 1:9) (공동번역)

4) 신信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참된 헌신과 의리의 모델이다. 성경 속 인물 중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절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며 애를 쓸 때, 끝까지 신의를 지켜 다윗을 구해 준 일도 있다³³⁾.

친구 간의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듯, 사람 사이에도 신뢰가 매우 중요함을 세상 살아가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다.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는 요즘 세태에 더욱 필요한 덕목인 것 같다.

요나단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
모든 힘을 기울여 다윗을 돕고 그의 왕위를 인정하는 아들 요나단.

아버지 사울의 살인 의도를 확인한 후 요나단은 다윗에게 알리고 떠나게 합니다³⁴⁾.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친구였을 텐데 얼마나 서운하고 안타까웠을까요?
평안을 빌어주는 요나단이나 심하게 눈물을 흘리며 우는 다윗이나 마음은 같았을 겁니다.

다윗은 광야로 떠나 도망자가 되고 요나단은 궁으로 돌아가 왕자의 자리를 지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언약을 맺은 동역자입니다.

서로의 길을 응원하고 평안을 빌어주며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입니다³⁵⁾.

5) 예禮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왕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며 사울을 놓아주었던 일화들이 있다. 심지어 사울을 장사 치를 때에도 예우를 갖추어 대했던 것³⁶⁾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내용인 것 같다.

11.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12.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

33) (삼상 20:12~42)

34) (삼상 20:42)

35) [출처] 매일성경 묵상.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 | 작성자 북소리

36) (삼하 1:11~12)

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6) 의羲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는 명언까지 있을 정도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에스더³⁷⁾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사촌 모르드개의 도움으로 바사 제국의 수도인 수산에 살다가 왕후 와스디 대신에 아하수에로(크세르크세스) 왕의 아내가 되었다(에 2:16-18).

한편 그녀의 사촌 모르드개는 왕궁의 낮은 관리로 있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 같은 자의식으로 인해 바사의 고관이 된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하만의 분노를 사게 되었으며, 결국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 전체가 멸망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에 3:7-15). 이때 에스더는 유대인 전체와 함께 3일 간의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호소하고는 ‘죽으면 죽으리다’는 각오로 동족을 구하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간다(에 4:16). 그 결과 상황은 반전되어 유대 백성은 오히려 보호를 받고 하만은 처형된다(에 7-8장). 이 같은 대 역전의 역사를 기념하여 이스라엘에서는 매년 그녀의 이름으로 된 책을 읽으며 부림일 축제를 지키게 되었다(에 9:20-32). ‘부림일’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해 그 날을 제비(부르) 뽑아 결정한 데서 유래되었다.

7) 염廉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³⁸⁾하게 된 인물이다. 바울은 봉급을 받지 않고 일했다는 내용도 있듯이 바울은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사로잡혀 귀하게 또 크게 쓰임받은 인물로서 존경받고 있다³⁹⁾. 바울의 “나는 십자가상에서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도 명언 처럼 전승되고 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행 9:3-5)”.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37) [네이버 지식백과] 에스더1 [Esther] (라이프성경사전, 2006. 8. 15., 가스펠서브)

38) (행 9:3-5)

39) (롬5:17)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 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8) 치恥

베드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의 한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⁴⁰⁾한 인물로 유명하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장면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⁴¹⁾”라고 말할 정도로 마음이 정직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 처형을 받으러 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진정 소망하며 기도드린다.

4. 나오기

조선시대 한국의 효제문자도를 통하여 한자문화권의 고사와 관련하여 고찰해 보았으며, 특히 한국문화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또 성경 속 인물에서 이러한 효제문자도와 관련된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탐구해 봄으로써, 조금이라도 우리의 신앙관과 정체성을 바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하며 이러한 좋은 덕목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되찾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진정 기도드린다. 또한 효제문자도와 관련된 성경적인 지식과 소양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더욱 선한 영향력으로 양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

40) (마 26:70, 72, 74)

41) (눅 5:8)

참고문헌

- 김혜진 『윤리문자도의 해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2011. 12.
- 서민자 「조선후기 孝·忠 사상과 문자도 연구」 -효제문자도를 중심으로-, 아시아民族造
形學報 通卷 第 8輯, 2010. 03
- 유홍준 『문자도』, 대원사, 1993.
- 윤 상 「문자도 조형성 연구」, 남서울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9.
- 이명구 「조선후기 효제문자도와 지방적 조형특성 연구-효제문자도의 그래픽 콘텐츠를
중심으로-」, 디자인학 연구 제 58호 Vol,17 No,4 2004.
- 이정아 『효제문자도 : 아름다운 그림글자』, 서울 : 지식과 감성, 2017.
- 장지영 「조선후기 문자도의 상징성과 조형성-효제문자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논문, 2006.
- 정병모 「조선 민화에 끼친 유교의 영향」, 『미술사학』 vol. 23.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9.
- 허 균 『우리 민화 읽기』, 북폴리오, 2006.